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이 얼굴이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느니, 얼굴이 더 젊어 보 인다느니 등의 말들을 하루에 몇 번씩 듣기도 하며, 관 계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뿐 본질은 큰 차이 가 없다.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 대방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다. 이는 서로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얼굴 보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뜻한다. 사실 서로에게 서로의 얼굴 을 보는 일이 얼마나 특별하며 의미 있는 일인가. 다만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깊 이 생각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은 것 뿐이다.

너무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얼굴 마주 보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얼굴이 곧 인간관계의 근본 적 조건이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있다. 리투아니아 출 신의 유태계 프랑스 사상가 에마뉘엘 레비나스(1906-1995)다. 그에 따르면, 얼굴이야 말로 우리가 살아가 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계 맺기 의 핵심 개념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관계란 다른 사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며, 느끼는 것이고 보고 느낀 것 에 대해서 서로 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레비나 스의 삶을 들여다 보면 그가 왜 얼굴을 철학적 개념으 로 끌어올렸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1906 년 리투아니아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프랑스 대 학에서 공부한 프랑스인이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과정에서 희생되었고 자신 또한 전 쟁 포로로 강제 노동을 했다. 전쟁에서 겪은 이 고통스 러운 경험이 타자에 대한 철학적 바탕이 되었다.

타자는 어떤 조건을 전제하든 '나'라고 부르는 우리 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 얼굴 없 는 존재다. 우리는 주저 없이 우리 밖에 있는 타자적 존 재에게 어떠하며, 어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규정하고 판단한다. 타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므로 어떤 생각 과 감정이 있는지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체 적이고 지배적인 '나'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방식으 로 존재하게 되는가? 나와 타자의 사이를 뒤집으면 답 이 보인다. 나 자신이 곧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 하는 것이. 이 타자의 얼굴을 레비나스는 관계의 핵심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타자는 밖에 있는 하찮은 것, 우리를 귀찮고 성가시게 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 삶에 관여하며, 우리 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만드는 조건인 것이다. 모든 존재 는 우선 얼굴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 얼굴은 지금 겪고 있는 비참과 슬픔, 가난과 고통, 두려 움과 아픔이 드러내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다. 그 리고 타자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타자의 고통과 상황에 응답한다는 의미다. 윤리는 곧 본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흔히 얼굴을 보면 차마 독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좀 더 적극적인 맥락에서 어느 철학자 역 시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고 의사소통을 나누는 '얼굴' 은 가장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장소"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얼굴을 마주 보며 드러나는 요청에 귀를 여는 관계를 맺고 있 는가? 불행하게도 관계의 편리성과 필요는 빈틈 없이 챙기지만, 타자의 얼굴은 외면하는 것에 이미 오래 전 부터 익숙한 것은 아닌가 싶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책 임과 연결되는 상호적 의미이며, 이 관계야말로 타자 를 향한 철저한 무관심과 '자폐적' 무지의 동굴을 벗어 나는 것이다. 또 이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휘두르는 자 유와 정의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윤리적 실천이다. 이런 뜻에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은 관념적, 위계적인 관계이자 지배의 구조를 넘어서 인 간회복적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타자인 '너' 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자유와 힘의 한계를 깨닫고, 누 군가를 '얼굴 없는 타자'로 규정하는 폭력을 멈추는 유 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오직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 로 묻자. 주변 누군가에게 얼굴 없는 사람으로서, 보이 지 않고 소리도 억압된 채로 우리의 비대해진 주체성과 과잉의 자유를 위해서 박제된 삶을 살기를 강요하는 것 은 아닌지 돌아보자.

社說

'학생 감소' 대학 위기 책임 지방대에 전가하나

정 규모화'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 학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전국 55개 일반대 학과 41개 전문대학이 오는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 6197명 감축하는 대신 해당 대학에 '적정 규모화 지원금' 1400 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 구 조조정 정책을 발표했다. 호남·제주권의 경우 17개 대학에서 2825명의 정원을 감 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 일반대 중 에서는 광주대·송원대·남부대·초당대·동 신대·목포해양대·광주여대 등이 참여하 며, 전문대는 청암대·순천제일대·청암대· 여수 한영대가 포함됐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해 전반적인 혁신을 이루겠다는 교육 부의 정책 취지와는 달리, 이번 방안이 신 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대학 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

교육부가 엊그제 발표한 '대학 입학 적 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수를 보더라도 비수도권이 74개 대 학으로 수도권 22개 대학보다 세 배 이상 많고, 감축되는 정원 역시 비수도권이 1 만 4244명으로 전체의 88%가 지방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찔끔 줄 이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의 정원을 늘려 준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 잡아야 할 당국이 도리어 불균형 을 부추기는 꼴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학령 인구 감소 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수도권보다 빠른 지방대들은 모집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 에 없다. 이로 인한 지방대의 몰락은 지역 소멸을 앞당긴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방 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더 많이 줄이고,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등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역 미래 발목 잡는 전국 최저 연구개발 예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광주·전남에 배정 된 것은 2.5%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의 절반 가 까이가 수도권에 쏠려 연구개발 분야에서 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5년간 연 구개발 총예산은 두 배 정도 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투입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2조 5954억 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9.2% (1조 2792억 원)이 지원됐다. 이에 반해 광주의 연구개발 예산은 전국의 1.4% (353억 원), 전남은 1.1%(281억 원) 수 준에 그쳤다. 또 강원은 0.7%(173억 원), 전북 3.1%(806억 원), 충북도 3.4%(876억 원)에 불과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도 인색했다. 지난 2018년 이후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 된 예산은 전국의 2.2%(532억 원), 전남 은 1.8% (429억 원) 수준이었다. 한데 경 기는 28.6%(6796억 원), 서울은 22.5% (5346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 월급여 액은 광주가 314만 1221원으로 17개 시 도 중 네 번째로 낮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개발 등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저성장・저임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 는 것이다.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은 기술력에 달려 있다. 정부가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이 유로 수도권에만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 면 비수도권과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지 역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현 정부는 '지방시대'를 내건 만큼 그동안 의 수도권 편중을 바로 잡고, 각 지역이 역량을 키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수필의 향기



김향남

어쩐지 좀 심란한 날, 옛이야기 한 편을 읽습니다. 제 목은 '덴동어미 화전가'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해마다 봄이면 야외로 나가 화전놀이를 즐겼다고 하지 요. 메마른 대지에 생기가 돌고 잿빛 산자락에 진달래 가 피어나면 모처럼 밖으로 나가 꽃놀이를 했습니다. 꽃잎을 따서 화전도 부쳐 먹고 북장구 가락에 춤도 추 고 노래도 불렀지요. 묵은 때를 벗겨내듯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화전가'라고 하는데요. 전해오는 작품들이 꽤 많지만 그중 백미는 '덴동어미 화전가'입니다. 만고풍상을 다 겪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사뭇 깊은 울림을 주고 있거든요.

'덴동어미 화전가'는 '덴동어미'의 이야기입니다. '덴동이'는 '불에 덴 아이'라는 뜻이에요. 늙어서 얻은 귀한 자식인데 불이 나서 그만 불구가 되고 만 거죠. '덴동어미'는 그래서 얻은 이름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불행이 줄줄 이 더 있었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도 꼬 일 수 있을까요? 세상에, 세 번 개가(改嫁)하고 네 번 이나 상부(喪夫)를 당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마음 심(心)자가 제일이라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실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 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상상을 초월할 때가 의외로 많으 니까요.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봐요. 감히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버젓이 뉴스거리가 되곤 하잖아요? 영화도 아니 고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뉴스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덴 동어미'의 그 사연이 꼭 지어낸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 다. 더구나 '덴동어미'가 살았던 시대는 여자 혼자서는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삼종지도(三從之道)니 수절 이니 권장하기만 했지 정작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성 의 처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그 때문 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여성들은 어 쩔 수 없이 '개가'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 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본능 같은 것이 있잖아요? '기어이 한 번 살아 보려'는, 그 의지 말이에 요. '덴동어미' 역시 그랬던 겁니다. 그럼에도 철저히 실 패하고 참혹하게 몰락한 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요.

어렸을 땐 '덴동어미'도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며 귀하 게 자랐죠. 그러나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열여섯에 맞이한 첫 낭군은 그네에 서 떨어져 죽고, 둘째 낭군은 전염병에 죽고, 셋째 낭군 은 폭우로 죽고, 넷째 낭군은 화마로 죽었습니다. 세상 의 불행이란 불행은 죄다 그녀 차지였어요. 죽음과 죽 음, 삶과 삶, 삶과 죽음 사이, 그 사이사이의 일들은 또 말해 무엇할까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 '덴동이' 하나 들쳐 업고 속절 없이 고향으로 왔습니다. 오십 년 가까이를 밖으로 떠 돌다가 어느덧 발길 닿은 곳이 고향이었던 거예요. 반 겨주는 사람은 없어도 손 내밀 최후의 안식처는 고향밖 에 없었던 걸까요? '덴동어미'는 마을 어귀 풀밭에 앉 아 서럽게 웁니다. 후회와 부끄러움과 설움이 복받쳐 땅을 후비며 통곡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묻습 니다. 왜 그렇게 우시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울음 을 그치고 사정이나 말해 보오.

그러구러 화전놀이 날입니다. 향긋한 꽃지짐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일 년 에 한 번 해방의 날을 맞아 아낙들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엉덩 글씨도 쓰면서 신나게 놉니다. 그중에 '덴동 어미' 누구보다 흥겹고 누구보다 잘 놉니다. 어떻게 그 럴 수 있을까요? 제 처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노래가 나 오고 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맞아요. '덴동어미'가 달라졌습니다. 아모르 파티 (Amor Fati)! 운명은 나의 것, 있는 그대로 사랑하 자. 한순간 마음의 변화가 일면서 모든 걸 뒤집어 버렸 습니다. 불행이며 고통이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이었어 요. 그것들은 끊임없이 어떤 가능성을 끌어내게 했고,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래서 삶을 다시 살게 했어요. 암 흑 같기만 하던 '덴동어미'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 했던 거죠. 폭우가 내리치고 거친 황토물이 휩쓸고 난 후면, 강물은 더 맑아져 여유롭게 흐르듯이 말입니다. 이윽고 '덴동어미'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 …새소 리도 고쳐 들으면 슬픈 마음 절로 나네 / 맘 심(心)자 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 요, 새는 예사 우는 거라…"

'덴동어미'의 말씀은 열여섯 어린 과부의 마음에도, 거기 모인 또 다른 마음들에도 깊은 위로가 되었어요. 아, 지금 여기 훗날의 독자에게도 깊이깊이 와닿고 있 습니다. 맘 심(心)자가 제일이라….

無等鼓

가족의 붕괴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한편으로 가장 먼 관계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 은 걸 보면 더 이상 혈연이나 법률혼 중심 의 개념에 '가족'을 묶어 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뜻하고 그리운 정서를 환기하 는 전통적인 가족의 이미지 또한 바뀌고 있다.

최근 가족의 개념과 경계에 대해 생각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가 발표됐 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의 비친족 가구 는 47만 2660가구로 통 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

다. '비친족 가구원' 또 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 100만 명 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58만 3438명 과 비교하면 가구원 수가 무려 74.0%나 급증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반적으로 '8촌 이내가 아닌 남남으 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비친족 가구 라 한다. 최근 들어 학업이나 취업을 이 유로 친구와 함께 살거나 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이들이 급격히 증가했 다. 공통점은 높은 주거비 때문에 집을

합쳤다는 데 있다. 물론 연애·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 가 바로 높은 집값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히 전통적 개념 의 '가족의 붕괴'가 설명되지 않는다. 학 업과 직장, 생활 양상의 변화가 외형상 비 친족 가구의 증가를 불러 온 것은 맞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 일테면 '편 애'나 '차별' '가부장적' 같은가족관계의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의

> 학과 전문의 이호선 한 양대 정신건강의학과 외 래교수는 저서 '가족이 라는 착각'에서 '가족이

라서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 다고 얘기한다. 다시 말해 "가족이니까 모 든 문제에 개입하고 지적하고 충고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오판"이라는 것이다.

'가족 붕괴'를 예방하는 것은 가족을 향 한 막연한 착각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을 대하는 것과 같은 적당한 거리 두 기, 친밀감을 토대로 한 새로운 가족의 형 태 또한 확장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skypark@

기 고



김혜선 광주CT연구원 설립 자문위원

광주는 시대를 앞서가며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 냈듯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항상 새로운 가치를 선도해 나갔 다. 이러한 노력 중에 하나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광 주 설립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조성을 위 한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명박・박근 혜·문재인 정부를 지나 현재까지도 완료하지 못하고

다행인 것은 2007년부터 시작한 5년간의 노력으로 10여 년 전인 2013년 광주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하 나가 되어 문화기술 주관 기관을 광주과학기술원에 둔 다는 문화산업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광주과학기 술원 내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문화기술 주관기관으로서 위치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애초에 CT연구소는 2015년 문체부 산하 독립 출연연구원으 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최소 1300억 원 규모의 예산 과 최소 500여 명의 인력을 확보해 설립을 완료, 문화 기술 연구개발(R&D) 전담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 행한다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적은 예 산과 비전문적인 운영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절실하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민관 협의기구 성격의 '한국CT연 구원 광주 유치·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듬해 7 월 CT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는 등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기 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수년째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음악・영화・게임 따위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여 문화예술 산업 을 발전시키는 문화기술 정책은 현재까지 산업화를 위 한 기술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R&D와 차별성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 러나 이제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에서는 인문사회·문화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문화기 술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문화기술 정책 자체의 융복합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7년부터 논의돼온 전담 연구기관 설립은 ICT분 야 공공기관과 공학 인력을 중심으로 기획됐지만 문화 기술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 문화기술은 융복합성을 보유한 문화기술 전 공자와 문화예술 작가, 공학 인력 등이 국가산업으로 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문화기술 자체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기술은 단순히 '기술' 분야가 아니라 '문 화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특수 분야로서 복합적인 프 레임으로 연구개발 되어야 한다. 문화기술의 정체성 없이 ICT의 한 분야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와 중복성으로 수년째 설왕설래하며 국책연구원 설립

이 미루어져 왔다. 실질적인 융복합 관점의 문화기술 의 재정의와 그에 근거한 제도 수립 및 수행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0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2005년 카이스트 문화 기술대학원을 설립하여 현재 문화기술 석박사 졸업생 만도 500명에 이르고 있다. 많은 융합 사고력을 갖는 문화기술인들이 양성되었지만,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 로 졸업생들은 창업을 하고 문화기술이 아닌 타 분야 산업체로 진출하거나 프리랜서 연구자 및 창작자로 고 군분투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기술은 제도적 행정적으로도 문화 혹은 기술 중 어느 하나의 프레임만 으로 해석되고 실행되기 어려워 다부처 차원에서의 정 책 제도적 융합이 필요하다.

문화기술은 한 분야의 인력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기획·제작·구현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 융합 가 치를 녹여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은 많으나 다학제·다분야 간 경력으로 이를 자기 안에서 융합한 문화기술 전문가는 많지 않

아울러 이러한 융합 인력의 광주 유입을 통해 문화기 술과 인공지능을 한 공간에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시작으로 국립 아 시아문화전당을 세웠고 15년간 노력해 온 국책연구원 문화기술연구소의 광주 설립이 조기에 결실을 거둬 문 화산업의 메카이자 '문화기술 도시' 광주가 완성되길 희망한다.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52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